

율법과 복음

* 10/22(목) 갈라디아서 1-6장

1-2장 복음

- 1:1-5 인사말
- 1:6-10 책망: 거짓 형제들
- 1:11-2:10 바울의 사역, 기원
- 2:11-21 복음: 믿음으로 의롭게 됨

3-4장 율법의 행위와 은혜

- 3:1-9 갈라디아인의 어리석음
- 3:10-22 믿음이냐 행위냐
- 3:23-29 율법 아래, 그리스도 안에
- 4:1-11 종과 아들
- 4:12-20 바울의 권면들

5-6장 육체와 성령

- 5:1-15 자유, 사랑, 믿음
- 5:16-26 육체와 성령(열매)
- 6:1-5 성도들의 상호관계
- 6:6-10 심기와 거두기
- 6:11-18 기독교의 본질

Before 출치며 읽기

하나님 백성의
<조건>은 무엇입니까?

After 묵상하기

성령의 열매는
<성령>의 열매입니다.
성령의 열매는 어떻게
맺을 수 있을까요?

초대교회가 계속 써온 문제 중 하나는
하나님 백성의 <조건>에 관한 문제였습니다.
바울서신에는 <율법>과 <믿음>에 관한 논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.

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회당에서 활동했습니다.
바울과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과거에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.
이방인 성도들 중 일부도 전에 유대교 예배에 참여했거나(행13:16),
공식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(행2:10, 6:5, 13:43).

초기 교회는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별성,
개념의 연속성과 차별성, 유대교와의 관계 등에 답해야 했습니다.
그 와중에 <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>들과 <거짓 사도>들이
유대교에 뿌리박은 바리새주의, 모세의 언약, 할례,
유대적 표지와 절기 등으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.
(갈1:6-9, 3:1-3, 4:17-18, 5:7-10, 고후4:2-3, 6:14-18, 11:22-23, 12:3, 11)

<거짓 형제>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같이
그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하나님께서 명령하신 <율법>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<선민의식>에 사로잡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
예수를 통해 행하신 구원도 <유대인>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유대인이 되는 절차, 할례 등의 유대적 표지들을 강요했습니다.

바울은 ‘성령에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이들’을 책망했습니다(3:3).
그는 더할 것도 덜어낼 것도 없는 <온전한 복음>을 선포합니다.

참고도서

- 갈라디아서 산책(권연경)
- 신약개론(데이비드 A. 드실바)
- 구약성서이해 열 마당(왕대일)
- 두란노 How 갈라디아서
- BST 갈라디아서 주석

유대인들은 <율법의 행위>들을 강조했습니다(갈2:16, 3:2, 5, 10).

율법의 행위는 선한 행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.

이스라엘과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는 <언약적 의무>를 가리킵니다(3:23-4:7, 5:1-4).

즉,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해 내린 지침들입니다.

거룩한 삶을 위해 <이방인>과 달리, <토라>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.

우리에게 <토라>를 주셨다는 자부심과 <이방인>에 대한 배타성이 동시에 담겼습니다.

결국 <율법의 행위>를 강조하는 것은

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,

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는 뜻,

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입니다(갈3:6-14, 28-29).

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‘배교’로 여겼습니다(1:6, 4:8-9, 5:4).

더불어 바울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 누누이 언급해 왔습니다.

율법의 효용성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와 죄를 깨닫고,

죄 된 나의 상태, 은혜가 필요한 나의 상태를 <진단>할 수 있을 뿐,

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(롬 7:7).

바울은 아브라함-모세와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

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, 하나님의 <새 언약>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.

(고후3:6-18, 4:10-15, 5장, 13:4-9, 갈2:16-21)

바울은 <부활한 예수>를 만나고 <성령>의 부으심을 받을 때에만

죄와 죽음, 종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.

성령이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.

성령으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.

(롬8장, 고후5:11-21, 갈5:11-13, 16-25, 10/12-14일 로마서 통독 가이드 참고)

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

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,

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

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,

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(갈6:14-15)

통독의 맥 잡기

1-2장 다른 복음은 없다

1:1-5 인사말

1:6-10 책망: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!

1:11-2:10 바울의 사역, 기원

박해자 사울, 은혜의 부르심, 아라비아의 시간,

게바와의 만남,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, 이방인 선교사 바울

2:11-21 복음: 믿음으로 의롭게 됨

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(20절)

3-4장 율법과 행위

3:1-9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?

3:10-22 믿음이냐 행위냐

3:23-29 율법 아래? 그리스도 안에!

4:1-11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

4:12-20 바울의 권면들

5-6장 육체와 성령

5:1-15 자유, 사랑, 믿음

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

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

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,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

5:16-26 나는 죽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: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

6:1-5 성도들이 함께, 각각 해야 할 일

6:6-10 심기와 거두기 :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

6:11-18 기독교의 본질 : 그리스도의 십자가